

데스크 시각

‘장미 대선’이 호남에 안긴 과제



장 필수
정치부 부장

사상 초유의 보궐선거로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은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초 12월에서 5월로 당겨지면서 일명 ‘장미 대선’이란 이름을 얻었다. 장미 대선은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실상 막이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5월 9일로 선거일이 결정됐고 정당별로 후보 선출과 22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투표까지 150여 일 동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었다. 탄핵 여파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화돼 나왔고 야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삼각축을 형성했다. 이렇다

보니 이전처럼 여야 양자 구도가 아닌 다자 구도가 만들어졌고 후보가 역대 최대인 15명(중간에 2명이 사퇴하긴 했지만)을 기록했다.

다자 구도는 특히 호남에 새로운 선거 환경을 조성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호남 유권자 특유의 투표 성향인 이른바 ‘전략적 선택’이 완화된 점이다. 호남 유권자들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최선의 후보는 아니지만 될 만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성향을 보였고 이를 정치권에선 전략적 선택이라고 불렀다.

후보조차 내지 못해서야

하지만 전략적 선택은 호남을 대변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교육지책이었다. 그동안 호남표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경쟁을 하지 않았고 당선이 되더라도 호남의 지지를 당연시했다.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상황, 이것이 장미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누리 기쁠 일 것이다. 탄핵 정국이 만들어 준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느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이룬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속칭 꽃놀이패를 쥐고 선거에 임했다. 그런

데 투표결과를 보니 호남은 이번에도 전략적 선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절묘한 표 분할로 문 후보를 밀어준 것이다. 어찌됐든 장미 대선이 호남에 안긴 과제도 있다. 다음에는 호남 출신 후보를 찍고 싶다는 유권자들의 소망에 응답해야만 하는 것이다. 호남은 15대 DJ이후 대통령을 내지 못했다. 17대 때 전북의 정동영 후보가 있었지만 이후로는 후보조차 없었다.

이번 장미 대선만 보더라도 본선의 주요 후보 5명중 4명이 영남이고 1명이 경기 출신이다. 각 당 경선 과정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최성 고양시장이 광주출신이지만 최하위에 그쳤고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의원이 나섰지만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비록 당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득표를 차기 대선 후보로 임지를 다졌다. 경남지사 출신의 홍준표 후보는 막말 논란에도 보수 표 집결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장미 대선을 지켜보면서 많은 호남 유권자들은 왜 우리는 후보를 내지 못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상실감을 느꼈다. 인구가 100만 명 안팎이라고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과 고양시장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데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장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조차 대선을 꿈꾸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

향후 이 지역 출신도 키워야

선거 때마다 호남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호남 표심이 판세를 좌우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렇다 할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기반성의 이면을 보면 지금부 터라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오래부터 새 정부가 출범한다. 여소야대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국 변화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 정치인들은 자치단체장 자리에만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지내고 나면 중앙주자로 나선다는 큰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도 큰 꿈을 가진 정치인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이들이 호남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로 커 가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장미 대선이 호남에 부여한 미션이 바로 이것이다.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박 홍 군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장·포유건축 대표

백문불어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야 확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직접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게 최고다. 그러나 직접 본다고 다 보고, 알게 될까? 그렇지만은 않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는 만큼 보게 된다. 이동 간에 수없이 보는 자연과 건축물과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기억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보이고, 알아야지 느끼며 감응이 전달되는 것이지, 보여 진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림 속에서 소리를 듣고, 음악 속에서 그림을 감상한다고 말한다. ‘미소를 듣고 음악을 본다’는 것이다. 처음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한 후,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보니 그림과 대화를 하는 나의

건축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그림과 대화하고, 음악 속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오직 나의 주관적 경험과 학습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어도 좋다. 내가 마음속으로 대화하고 그림을 그리며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면 족하다.

건축도 향유의 대상이다. 건축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한다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다. 우린 24시간 건축물과 접해 있다.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건축물, 일상에서 함께하는 건축물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와 대화할 수 있다. 감상할 수 있다. 친구도 될 수 있다.

얼마 전 생애 처음으로 소규모 임대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과 미팅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건물이 보이고, 간만에 눈에 띄고, 건축 재료가 무엇인지 관심이 가더라는 것이다. 재미도 있고... 그 이전에도 수없이 늘 내 곁에 있던 것들이건만 보이지 않다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건축가는 지어질 땅과 대화한다. 주변의 흐름을 읽는다. 땅이 원하는 게 뭘지, 주변과 어떤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지,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과 경제력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등을 고민한다.

그리고 디자인한다. 다른 건축물들과도 대화한다. 각각의 필지가 어떤 기능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립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상상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의도를 직접 설계자나 건축주에게 들어본다. 정답은 없다. 다양한 해법이 있을 뿐이라는 것도 다시 알게 된다.

모든 인간들이 나름 본인의 역사를 쓰는 것처럼, 건축물도 각각의 사연에 따라 본연의 모습과 기능,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를 깨닫는 순간부터는 함부로 건축물 평을 안 하게 되었다. 단지 나 자신과 대화를 할 뿐이다. 왜 저렇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해의 폭을 넓혀 간다.

건축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건축물에는 정치, 경제, 기술, 역사, 문화, 삶 등이 녹아 있다. 건축물은 유기체처럼 성장하고, 시대 변화의 커를 간직한다. 옛 전남도청과 그 앞 광장, 주변의 전일빌딩을 생각해 보라. 건축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덩어리로서 건축물을 안다는 것이 아니다. 그 덩어리와 함께한 역사의 기억을 안다는 것이다. 디자인과 컬러, 재료와 디테일을 건축적 지식과 그와 관련된 역사, 정치, 시대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서 있다면 수많은 교감을 나눌 것이다. 큰 함성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럴 경우 그 장소가 남달리 보일 것이고 색다른 감동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하고, 그리스와 로마를 포함한 유럽여행을 한다. 그때 많은 폐허 유적지를 보게 된다. 그냥 보면 돌 덩어리지만 조금만 관심 기울려 역사를 알고 보면 달리 보인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감동이 몰려온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를 여행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이런 경험은 오랫동안 삶의 추억이 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희준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 서문 중 어느 유학자가 남겼다는 이 글을 읽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던가. 그는 전국토를 박물관이라고 했다. 동감한다.

건축유산은 가장 덩치가 크며, 주변 것이 거의 건축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담으며 오랫동안 존재한 것만으로도 다 가치가 있다. 우리가 무관심하여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아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자제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의 ‘건축이 다 박물관이고 전시관이 될 수 있다. 삶의 질을 풍요롭게 주변의 건축유산을 문화로 향유하자. 이를 위해 지금부터 ‘건축 알기’를 시작해 보길 권해본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김 요 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우리는 혼자서 밥 먹는 일이 좋았다. 요즘 말로 하면 ‘혼밥’. 왜? 눈치 안 봐서 좋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서란다. 마땅하다. 젊음이란 느끼고 자유다. 눈치를 보면 창조는 멀어지고, 자유를 잃으면 앞날이 막막하다. 우리 아버지인 상철이 아재는 이해를 못한다. 상철이 아재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한다. 물론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시작한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뒷사람과 의논하여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를 정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다.

민정이는 혼자서 술 먹는 일을 즐긴단다. 요즘 말로 하면 ‘혼술’. 왜? 먹을 만큼만 먹고, 흥이 나면 몸도 흔들고 노래도 하는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서란다. 마

혼술과 율로

땅하다. 젊은 문화란 겪어보고 깨달아 즐거움으로 바꾸는 일이다. 민정이가 삼촌인 명식은 ‘미진X’이라 한다. 명식이 삼촌은 술 생각이 나면 이리저리 전화하고, 누나를 부르니 마니, 무엇이 맞는지, 아니 너무 번거롭게 된다. 물론 누가 돈 낼 것인지 따진다. 술 한 잔이라도 어울려 마시고 떠들썩해야 술 맛이 난단다. 민정이는 가우동한다.

‘율로(YOLO)’라는 말 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You Only Live Once) 이니까. 율로족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스스로 어울리는 일을 찾는다. ‘앞날’을 위해 참고 고생하지 않고, ‘지금’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이다. 시포 착던지고 세계일주하기, 발린 집이지만 사는 동안은 내 돈 들어 내 집처럼 꾸미기, 어른인데 비싼 장난감 조립하기, 맛있는 집 찾다니며 먹기. 율로족은 상철이 아재나 명식이 삼촌과 같이 생각조차 못할 일들을 한다.

율로족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은 뒷사람 눈치 보느라 흥 깨지는 일 싫어한다. 뒷사람 앞에서 굶실거리며 자신을 감추는 일은 직장에서만 겪어도 충분하다. 똑똑한 척하기는 쉬워도 싫은 자리에서 즐거움 척하기는 힘들다. 마음에 맞는 사

람들에게 자랑(질)하기는 쉬워도 눈치 보는 자리에서 헤매거리기는 고달프다. 밥 먹고 술 먹는 자리에서까지 머리 조아릴 일 없다. 율로족이 아니라도 말이다. 어른들 했던 방식으로도 살았다면 어른들처럼 살기 십상이다.

2009년 2NE1(투에원)이란 걸그룹이 나오면서 ‘I don’t care’(아이 돈 케어)란 노래를 불렀다. ‘관심 꺼’나 ‘신경 쓰지마’ 정도로 말할 수 있겠다. 하고 싶은 일 하겠다. 젊은이들의 외침이다. 젊은 치마도 눈에 거슬리는데 노랫말까지 그 모양이라며 혀를 끝끝 차는 어른들 많았다. 물론 ‘요새 것들은~’이란 말을 빼지 않았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라. 그게 젊음이다. 허 차는 어른들 역시 젊었을 때 그랬다.

1590년 ‘파우스트 박사’란 희곡에 ‘케 세라 세라’라는 대목 나온다.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이나 하라’ 쯤의 대사란다. 400년 전에도 젊은이들은 제 맘대로 하고 싶어 했다. 우리나라에서 ‘케 세라 세라’는 노래로 더 알려졌다. 1956년 알프레드 히치콕이 만든 영화(The Man who knew too much)에서 도리스 데이가 부른 노래다. 영화에서 예쁜 배우는 피아노를 치면서 입을 짹짹 벌리며 ‘케 세라 세

라’를 부르고, 어른들은 뜻밖에도 공손하게(?) 앉아서 듣는다. 젊은이의 노래를 가만 들어주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름답기조차 했다.

멀리 가지 않아도 1970년 영국의 전설 비틀즈가 부른 ‘렛 잇 비’(let it be)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 ‘그대로 뒤’, 전라도말로 하면 ‘내비 뒤’ 쯤 풀까. 젊음은 ‘시작’해서 부딪히고, 겪으면서 쌓아간다. 옛날의 젊은이가 그랬고, 지금의 젊은이가 그러다. 젊은이의 문화는 ‘간섭이’ 아니라 격려로 자란다. 옛날의 문화가 그랬고, 지금의 문화도 그러다.

‘혼술’은 이미 중국 당나라의 이태백이 시작을 했다. 이태백의 혼술은 침이 마르도록 떠받들면서 민정이의 혼술을 야단쳐서는 안 된다. 밥은 꼭 대접을 해야 한다는 상철이 아재의 관습으로 문화는 나아가지 못한다. 삼촌 꼭 어울려 마셔야 한다는 명식이 삼촌의 우길집으로 문화가 지켜지지는 않는다. 문화는 씀이고, 문화는 즐거움이다. 내 심을 위해 남의 심을 간섭하고, 내 편함을 위해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니들이 뭘 알아?’로 톡 쏘면 문화는 깨진다. 문화판에 따르는 격인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마라’고.

社 說

호남 또다시 전략적 선택...새 정부 응답하라

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민국의 열아홉 번째 대통령이다. 문 후보는 오늘 오전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게 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선거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 5개월, 그리고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로는 2개월 만이다.

시민들의 투표 참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총선 때보다 두 배 높은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종 투표를 역시 80%에 근접하면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유례없는 갈등과 국정 혼란을 경험했다. 안보 위기 속에서 천만이 넘는 촛불 집회와 한 줌도 안 되는 태극기 집회 세력이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2개월 동안의 버락치기 대선 기간에도 세대·지역·이념으로 갈렸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오늘로서 국정 공백이 끝나고 마침내 나라가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폭력 시민 승리의 결과

이번 대선은 지난겨울 내내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등 전국의 거리에서 만들어 낸 촛불 혁명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또한 최순실 등 비선 실세와 결탁한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심판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분노와 열기를 비폭력으로 승화한 시민 승리의 전리품이기도 하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예기치 않게 치러진 대선이었다면 터라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기간이 두 달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점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어떤 후보라도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깊이 고민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 불안한 시선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맞고 있는 현 상황은 여러모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다.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과 심화된 경제 양극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한 동북아의 긴장 상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청년은 일자리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민국의 열아홉 번째 대통령이다. 문 후보는 오늘 오전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게 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선거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 5개월, 그리고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로는 2개월 만이다.

시민들의 투표 참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총선 때보다 두 배 높은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종 투표를 역시 80%에 근접하면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유례없는 갈등과 국정 혼란을 경험했다. 안보 위기 속에서 천만이 넘는 촛불 집회와 한 줌도 안 되는 태극기 집회 세력이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2개월 동안의 버락치기 대선 기간에도 세대·지역·이념으로 갈렸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오늘로서 국정 공백이 끝나고 마침내 나라가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분열·갈등 접고 통합으로

주요 후보만 해도 다섯 명이나 됐던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은 여러 편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통합정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가장 나쁜 일은 계속해서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의 정치를 편 것 이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에 불과해 총 300석 가운데 약 40%에 그친다는 점에서도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회의 ‘60% 룰’이 지배하는 곳 아닌가. 무엇보다도 협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대 세력에 대한 과감한 포용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 호남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바로 그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만이 과반의 지지를 그에게 보냈다. 국민의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지난 총선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물론 안철수 후보에게도 적절한 표를 분배해 주었지만 호남은 결국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취하면서 또 다시 전략적 선택을 깊이 고민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 불안한 시선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맞고 있는 현 상황은 여러모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다.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과 심화된 경제 양극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한 동북아의 긴장 상태. 주가는

이번 대선은 지난겨울 내내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등 전국의 거리에서 만들어 낸 촛불 혁명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또한 최순실 등 비선 실세와 결탁한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심판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분노와 열기를 비폭력으로 승화한 시민 승리의 전리품이기도 하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예기치 않게 치러진 대선이었다면 터라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기간이 두 달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점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어떤 후보라도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깊이 고민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 불안한 시선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맞고 있는 현 상황은 여러모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다.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과 심화된 경제 양극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한 동북아의 긴장 상태. 주가는

無 等 鼓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 땅의 문화재 또한 수난을 겪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와 같은 일본인 재력가들에 의해 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됐다. 도자기와 그림뿐만 아니라 탑과 석등(石燈)과 같은 석조문화재도 예외일 수 없었다. 군산시 개성면 발산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서면 급작스러운 일제의 패망에 따라 미처 반출하지 못한 석탑과 석등 등 많은 유물을 찾아볼 수 있다.

광양 증흥산성 쌍사자 석등(국보 103호)과 경남 함안 영암 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353호)도 1930년대에 자칫 일본으로 팔려 갈 뻔했다. 두 석등 모두 사자 두 마리가 화사석(火舍石·붉은 밝히는 부분)을 받쳐 들고 있는 통일신라 시대 조각품이다. 일본인들이 석등을 분해해 옮겨 가려다 주민들에게 들켜 실패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증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옥룡면사무소→전남도지사관사→경북공 자경전→경무대→덕수궁→경북공→옛 중앙청(국립 중앙 박물관) 등을 거쳐 1990년에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영암 사지 쌍사자 석등은 본래 자리인 절터

하기를(聖壽天長)/ 모든 곡식이 풍년될 기를(百穀豊登)/ 나 누가 편안하기를(錦壽恒存)~”이라는 명문에서 제작 의도를 알 수 있다.

나주 서성문안 석등이 8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국립 나주박물관은 11일 오후 3시 박물관 중앙홀에서 나주 서성문안 석등 제막 점등식을 갖는다. 석등은 부처의 빛을 밝게 비치게 하기 위해 법당 앞에 세웠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원래 자리를 떠났던 석등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제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88년 만의 귀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